

##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상황

배 의 숙

(서울사대 부설고 교사)

---

Bae, Eui-suk. (2001). The situation of the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 73-85.

When the importance of various cultures is emphasized more and more, learning various languages can also keep off the cultural standardization. But today the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facing a serious crisis. The balance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s not proper. The environment for learning the second foreign languages is getting worse. In the seventh curriculum the credit hour will be reduced. Moreover, students start to learn the second foreign language only when they are in the eleventh grade. Many German- or French teachers have to change their own subjects into another subject. The quality of education will go down. Changes should be taken place gradually in order to prevent side effects.

---

### I.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제2외국어 교육

여러 마디의 말이 필요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특히 독일어 불어와 같은 유럽어 교육은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와 같다. 입만 열면 모두들 세계화니 다양화니 외국어교육이 중요하다느니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제2외국어 교육 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 글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논문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 쓰여졌다. 지금 현재 제2외국어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 1. 지나친 특정외국어로 편향되는 제2외국어 교육

제2외국어 교육은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서 있게 될 국제적 환경을 예측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자 중심 선택을 강조하다보니 근본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극심한 특정 외국어로의 편중 현상을 나았다.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는 극소수의 학생만이 선택을 하여 다양한 외국어교육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고 지나친 일본어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 5월의 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 희망 조사 결과 (표1, 2)를 바탕으로 학습자 선택에 맡겨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어와 일본어가 함께 설치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실제로 일본어 희망이 90%가 넘어 반 편성이 어려운 형편이다. 대도시 학교에서는 1-2개 서양어 반이 편성될 수 있다 해도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서는 반 편성이 불가능하고 결국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 반만 편성이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길러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있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선택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7차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수단위가 축소되고 이수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상향조정된 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외국어는 11-12 학년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제2외국어 I은 일반선택과목으로 6단위(2단위 증감 가능)가 배정되어 있으나 제2외국어II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현 상황에서 제2외국어 II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학교 재량활동(컴퓨터

터, 한문, 환경, 생활외국어)과 10학년 교과 재량활동에서 선택할 여지를 열어 놓았으나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컴퓨터와 한문을 선택하고 있고<sup>1)</sup>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비중이 높은 과목이 선택될 확률이 크다. 6차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8-12단위를 선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단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고 이는 제2외국어 교육의 부실과 과원교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국민 공통기본교육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고2에 가서야 처음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된다. 이는 외국어 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 3. 과원교사 양산으로 인한 교단의 불안정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독일어와 불어에서 총 1,100 명 정도의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전체 약 1,800명의 6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표6) 그러나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단위수 경감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고 또한 일본어 희망을 56%로 잡았을 경우에 계산된 수치이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어 일선학교에서 일본어 선택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I만 선택한다고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과원이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이는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 II. 현장 교사의 목소리

### 1. 과원으로 인한 불안정한 미래

제2외국어는 “제2”라는 고정된 수식어가 보여 주듯이 교육과정이나 대

1) 7차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재량활동에 컴퓨터, 한문 등과 함께 생활 외국어가 도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문과 컴퓨터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중학교용 생활프랑스어는 전국에서 4개 학급이 채택해 취지가 무색하다.

학입시에서 오랜 기간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경제논리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알게 모르게 “제2” 교사로서의 대접을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의 제2외국어 교육정책은 대량의 독일어 불어 과원교사를 만들어 냈다. 언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점점 경시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자존심을 지켜왔던 교사들은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교사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애지중지 키우던 나무가 말라 죽어 가는 모습을 보는 농부의 안타까운 심정? 즐기차게 짝사랑만 해오다가 대답 없는 상대에게 환멸을 느끼며 마침내 돌아서는 심정? 될성부를 나무가 아니니 일치 감치 떠나라는 권유에 발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돌아보는 그런 심정? 다음 해에 당장 처지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오늘도 제2외국어 교사들은 불보듯한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미련 없이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하루를 연명하며 서성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제2외국어 교사들은 말로는 세계화니 문화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2외국어 교육을 말살시키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 2. 수요자 희망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

수요자의 희망을 존중한다는 원칙은 언뜻 참으로 그럴듯한 교육 원칙인 듯 보인다. 그러나 희망에도 등급이 있다. 신입생이 4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하자. 이중 특정 외국어를 배우려 하는 진지한 이유가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필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한 학교에서는 12반중 선택의 여지없이 남학생 6개반은 독일어, 여학생 6개반은 불어를 각각 2명의 교사가 담당했었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 시수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입생 등록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홍보물에서 희망학생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 때는 희망 자체가 무시될 수 있다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특별한 희망이 없는 학생은 “학교의 배정에 따르겠다”라는 항목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실제로 자신이 꼭 희망하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설명한 후 의견 조사를 했다. 결과는 특정한 외국어를 배워야 할 희망이 아주 강한 학생은 소수였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배정에 따르겠다고 선택을 했고 권유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를 했다.

물론 일본어가 선택 항목에 들어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본 문화에 대한 욕구나 요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일본어에 대한 욕구는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방임에 지나지 않는다. 다양한 외국어가 경중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 학생들이 자라서 세계와의 균형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학습자 선택권 보장만이 지상의 명제인양 일본어 편중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절실한 이유가 있는 학생들의 희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외국어를 배우든 별로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친한 친구가 어느 외국어를 선택하는데 같은 반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신도 그 외국어를 선택하고 싶다는 사소한 희망에 따라 어느 한 외국어 선택란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또 이런 선택에는 언제나 균중심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포기한 교사,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후 다른 수업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 이 학교 저 학교 방문판매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과 혹은 동료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순회교사, 이런 것이 이런 사소한 희망의 대가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지만 결국 그 피해는 교육의 수혜자 자신에게로 돌아가며 이 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그 피해자는 바로 수요자 자신이다.

### 3. 시대에 역행하는 제2외국어교육 제도

7차 교육과정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결함은 실질적으로 이수 단위가 축소 되어 제2외국어 교육이 약화되고 과원 교사가 급증한다는 문제 외에 기본 공통교육과목에 들지 않음으로 해서 고2에서 처음 제2외국어를 접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어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영어 수업이 초등학교로 내려간 마당에 제2외국어는 오히려 그에 역행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로서 제2외국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 유발을 시키고 흥미를 지속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외재적인 요인도 문제려니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언어 자체를 공부하게 할 동기를 찾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새로운 언어에 대한 잠깐의 호기심이 지나가면 학생들은 곧 흥미를 잃게 된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의 의식 수준과 학습해야 할 언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성숙할 대로 성숙한 고등학생이 “어머니, 아버지” 수준의 단순한 어휘를 반복해서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유치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학생들의 관심을 붙들어 두기 위해 교사는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를 배우는 연령이 중학교쯤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시 입학 등으로 대학입시의 부담은 더 낮은 학년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실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난생 처음 배우는 외국어가 “즐겁게” 다가올 만큼 한가로운 마음이 아니다.<sup>2)</sup> 입시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10년 동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과목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덤으로 잠깐 배우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는 제2외국어는 결코 내실 있는 수업이 되지 못하는 귀찮은 과목이 될 뿐이다.

2) 독일어 수강 고등 학생 1/2학년 동기화 수준 비교

필요도 인식(급간: 1-5) 평균치 1학년: 2.70, 2학년: 2.43

만족도 인식(급간: 1-5) 평균치 1학년: 3.30, 2학년: 2.76

권오현, 고등학교 제2외국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2001 서울사대 학술대회 발표 논문)

#### 4.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대학이 극소수인 관계로 생기는 파행적인 수업

대입 수능시험에서 처음 제2외국어가 채택되었던 해인 2000년 초엔 고3 교실에선 의욕적으로 입시지도를 시작했다가 대부분의 대학이 반영 계획을 번복하는 바람에 우스운 꼴로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을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을 강행하기에는 학생들과 너무나 힘든 줄다리기를 해야만 한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총 쏘는 법을 배우는 병사들의 심정과 같은 입시생들에게 제2외국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너무나 한가한 노래쯤으로 들릴 것이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으니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조차 제2외국어를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주요”과목에서 점수를 따겠다고 생각한다. 결국 극소수의 학생들만 따로 앞에 앉아 수업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습을 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는 자습을 하고 선택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 수업을 해야하는 이중 부담 및 파행이 일어나게 된다.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육정책 담당자들도 교육적인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쉽게 고득점자를 끌어 모으고 지원률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데만 급급하니 어려운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보상이 온다는 것은 도덕 교과서에서나 읽을 법한 이야기가 되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가 한문과 같은 선택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중학교에서 이수해 온 과목과 제2외국어를 같은 선택군에 둔 것은 역시 불합리한 결정이다.

### III. 제언

제2외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외국어 교사회 장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1. 7차 교육과정 편제의 문제점

### \* 대안 A

제2외국어 I 을 6단위로 하여 10학년의 국민공통기본교과목에 포함시키고 제2외국어 II 는 일반계고교의 경우 11~12학년에 일반선택과목의 필수 선택으로 하되 단위 수는 6단위(2단위 증감 가능)로 할 것.

### \* 대안 B

수능시험에 제2외국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 제2외국어 I 은 일반선택으로 반드시 택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와 같이 대학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하고 심화선택인 제2외국어 II 는 대학수능시험 선택과목으로 부과되 인문계열의 대학에서는 반드시 별도로 제2외국어 II 대학수능시험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특정 외국어로의 편향

- 1) 8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2외국어 선택은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학생들의 선택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시행 지침을 세울 것. (7차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도록 시행하라는 것만으로는 제2외국어의 편중 선택은 막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미 6차 교육과정에서도 제2외국어의 경우만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누차 강조해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극심한 선택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서양어와 동양어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되 과목은 2~3개로 할 것이며 학급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제2외국어를 단수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선택 희망자가 극히 적은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이들 외국어를 설치한 학교들을 적절히 배치하되 이들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들 외국어의 설치를 유도할 것.
- 3) 제2외국어를 선택하기 전 학년도(9학년 또는 10학년)에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되 이 때 국제이해교육에서는 반드시 학생들 각자의 진로와



사회적, 국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제2외국어 선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교육용 자료 제작에 힘쓸 것.

- 4) 제안①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제10학년에 제2외국어가 설치될 경우의 안이다. 학교별로 제2외국어 2~3개(동양어와 서양어를 각각 하나 이상씩) 설치해 놓고 고교 진학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 3. 과원 교사 양산으로 인한 교단의 불안정

- 1) 제2외국어 과원교사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기간 중 과원교사들에 대해 신분 보장을 완벽히 해줄 것.
- 2) 제2외국어Ⅱ를 실질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초래되는 과원교사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전공연수나 위탁교육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제2외국어Ⅱ 단위수가 반드시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것.
- 3) 단기 부전공 연수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모든 단기 부전공 연수는 중지하고 최소한 1~2년의 위탁교육(비용 정부 부담)으로 전환하되 이들 교사들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 자격증을 발급할 것.

## IV. 맺음말

제2외국어 교사 위기는 외국어를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을 조장함으로써 온 나라가 영어 열풍에 휩싸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뛰어난 언어실력은 정보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의사 소통만

이 문제라면 영어 하나로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유럽이라는 땅덩어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양어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를 키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시아의 이웃들과 경쟁하고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의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의 학생 세대가 유럽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삼을 기대는 아예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실리적인 측면 외에도 다양성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미래 사회에서 언어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는 단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가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sup>3)</sup>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나가자는 주장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마당에 언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소화해 내는 도구 역할을 하게 할 우리의 외국어 교육은 점점 획일화되는 길을 걷고 있다. 잘못된 교육 철학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어른들 아무에게도 없다.

### 참 고 문 헌

- 권영철,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 교과 문제점, 7차교육과정과 제2외국어 교육정책의 문제점 공청회 발표문, 2000. 10.
- 권오현,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2001 서울사대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서울시교육청, 정보화·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4개년 계획, 2001, 서울시교육청.

3) 유네스코는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 31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반세기 동안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네스코가 표명하는 문화 관련 중점 사항을 종합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UN이 1948년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에 버금갈만한 가치와 파급 효과를 지는 것으로 21세기 각국의 문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뉴스, 2002. 1. 3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뉴스 2002. 1. 31.

이호재 편, 유럽통합과 교육협력, 법문사, 1999.

한국 제2외국어 교사회, 7차교육과정 제2외국어문제 개선안, 2001 교육부  
교섭안.

부 록

교육부 통계 자료

표1) 제2외국어 과목 선택 현황 (일반계고, 2000. 4. 현재)

과목 비율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계
학생수 (명)	317,953	199,087	12,792	80,606	275,649	3,825	889,912
비율 (%)	35.7	22.4	1.4	9.1	31.0	0.4	100

표2) 제2외국어 과목의 학생선택 희망조사 (일반계고, 2000. 5. 현재)

과목 비율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계
학생수 (명)	101,450	64,074	58,734	148,615	501,021	16,018	889,912
비율 (%)	11.4	7.2	6.6	16.7	56.3	1.8	100

표3) 독·불어 담당교원 중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 현황

과목	담당 교사수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 현황					계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기타	
독일어	1,188	3	3	41	320	57	424
프랑스어	695	·	1	10	223	31	265
계	1,883	3	4	51	543	88	689

표4) 제2외국어 편성·운영현황 (2000. 8. 현재)

구 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복수편성교	단수편성교	복수편성교	단수편성교
학교수	723	458	140	622
비 율	61.2%	38.8%	18.4%	81.6%

※ 일반계고 :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심 교원 수급 고려  
 실업계고 : 대부분 일본어를 단수로 편성

표5) 제2외국어 과목별 학생 선택 비율 (2000. 8. 현재)

구분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일반계	35.7%	22.4%	1.4%	9.1%	31.0%	0.4%
실업계	5.1%	3.4%	0.2%	3.3%	87.9%	0.1%

※ 중국어, 일본어 선택 경향 증가 추세

표6) 예상 과원 교사수

구분	독일어	프랑스어	계
과원교사수	687	429	1,116

※ 학생 선택 완전 보장시 독일어, 프랑스어는 과원교사 급증 예상

표7) 예상 부족 교사수

구분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계
부족교사수	146	216	716	1,078

※ 학생 선택 완전 보장시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는 부족교원수 증가 예상

표8) 연도별 과원교사 해소 계획

연도	위탁교육	부전공 자격소지자 타교과 임용	보직교사 활용 및 자연 감소	총계
2001	200	170	27	
2002	200	170		
2003	-	170		
2004	-	179		
계	400	689	27	1,116

표9) 연도별 중국어·일본어 부족교사 충원 계획

연도	독·불어교사 중 일·중국어 소지자 임용	위탁교육 후 임용	기간제 교사 등	누계
2001	55	-	170	225
2002	-	200	170	595
2003	-	200	170	965
2004	-	-	113	1,078
계	55	400	623	1,078